

담배·마약·매춘...나쁜 행동이 문명을 발전시켰다

나쁜 짓들의 역사

로버트 에반스 지음, 박미경 옮김

담배, 마약, 매춘...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나쁜 것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금기시해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체로 사람들은 '악덕'을 피해야 할 부끄러운 습관으로 여겼다. 그러나 나쁜 것이나, 나쁜 짓이 사실은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켜왔다고 보는 이가 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작가인 로버트 에반스가 펴낸 '나쁜 짓들의 역사'는 기존의 잘못된 것으로 규정했던 행위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한다. 'cracked.com'의 편집장이기도 한 그의 기사는 연평균 6400만 번이 조회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아이러니와 유머 감각이 발휘되는 통찰력은 이번 책에서도 흥밋거리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총균쇠'가 수렵인을 현대인으로 진화시켰다면 '술 담배 매춘'은 우리 문명을 어떻게 바꿨을까에 초점을 맞춘다(그러므로 이 책은 관점의 전복에 따라 책을 읽어야 흥미롭다).

저자는 문명의 기원에 사회생물학의 원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술과 파티에 대한 욕구가 인류를 농경사회에 뿌리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농경사회 속에서 인류는 더 많은 맥주를 만들고 사교 모임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더 정교하고 복잡한 문화를 이끄는 데 일조를 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발 페티쉬(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 같은 성적 일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에이즈의 창궐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감염의 위험을 피하며 성적 욕구를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든 악덕 뒤에는 충동이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충동은 파괴적인 특징이 있지만, 잘만 다루기만 한다면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적잖은 동기부여가 된다.

"역사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가 고대 비잔틴의 테오도라라는 여성이 매춘부 출신으로 황후가 된 일이란 것을 알았다. 또한 현대 유전 과학이 환각제의 도움을 받은 두 과학자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책에는 악덕이 인간 역사를 바꾼 방식과 악덕을 즐겼던 사례도 담겨 있다. 그리스 철학자의 환각제험을 확인하기 위해 보리와 치즈를 혼합한 와인을 마시기도 했다. 살아있는 독 도롱뇽을 알코올에 넣어 만든다는 환각 음료를 찾아 세계를 떠돌았다.

이처럼 저자는 '나쁜 행동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켰을까'라는 의문을 토대로 악덕과 문화의 이면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오래 전 터부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문명의 일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것 뒤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인간이 독창성과 발명의 무게를 더하고 난 다음에서야 당시인



매춘은 인간이 돈과 맞바꾸기 위해 최초로 했던 것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인미디어 제공>

그것을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하라." <영인미디어·1만7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조용히 이기는 사람들=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묵묵히 늘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 저자 마티아스 뉘케 박사가 제시한 '절제(Understatement)'는 실제보다 낮춰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성과 관리·화술부터 역사·심리 같은 인문분야까지 두루 망라하여 절제를 다루고 있다. 한발 뒤로 물러나 자신을 낮추는 말과 태도로 성과를 내는 법을 알려준다. <이마·1만3000원>

▲사냥꾼의 고기는 썩지 않는다=강의와 원고, 연구 등으로 지친 나날을 보내던 저자는 어느 날 야미조 산속에 홀로 사는 사냥꾼 친구 '웃상'이 보내온 명주담을 받고 그 집은 향기에 이끌리듯 무작정 그를 찾아 나선다. 병잡힌 도료를 떠나 차도 들어가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의 리얼한 야생생활의 기록이 이 책으로 탄생했다. 책 속에는 음식 문화사, 곤충학, 미식 탐험, 일본의 맛, 일본의 문화와 사냥꾼의 생활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사과나무·1만4000원>

▲김영란 법, 김영란에게 묻다=부정부패 청산의 역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 법. 시행 1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원안자로서 지금껏 말을 아껴 온 김영란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법관 출신으로서의 경험, 법안 통과와 우려곡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금수저 방지법 입법의 해-최순실 게이트, 금수저 방지법 입법의 좌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의 미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풀빛·1만5000원>



▲더 박스=세계 경제사에서 컨테이너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매혹적으로 담아낸 '더 박스'. 팽팽한 컨테이너 박스의 변천사와 함께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인 경제학자 마크 레빈슨은 박스의 부두노동자, 항구, 기업, 도시, 국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총횡무진 일주하는 박스를 따라 세계 경제사를 관통하며,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청림출판·3만 원>

▲만두와 사우나만 있으면 살 만합니다='사우나와 만두만 있으면 힘든 하루도 거뜬히 보낼 수 있다!' 저자는 우리도 가장 하진 않지만 '이 두 개만 있으면 걱정 없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넓혀가면서 취미와 즐거움을 찾아갈 것을 추천한다. <와이즈베리·1만4000원>

헌책방에서 건진 명작동화 초판본의 깊은 이야기

피터와 엘리스와 푸의 여행

곽한영 지음

한참을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천방지축 사내같지만 속 깊은 둘째 조, 천사처럼 착했던 셋째 베스, 어딘지 이기적이고 암체같았던 막내 에이미는 금방 기억이 나는데 어른스러웠던 '첫째'의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을 뒤져서 '메그'라는 이름을 알아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작은 아씨들'의 네 자매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이 책 때문이다. 곽한영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가 쓴 '피터와 엘리스와 푸의 여행-고서점'에서 만난 동화들.

2015년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에 방문 교수로 갔던 저자는 동네 헌책방에 들렀다 파란색 표지 색이 고와 '책 한권'을 뽑아 든다. 파란 바탕 위에 하얀 장미와 함께 새겨진 책 제목은 'Daddy Long



Legs', '키다리 아저씨'였고 책은 무려 1912년 초판본이었다. 저자는 책의 삽화들이 어린 시절 이 책을 읽던 즐거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니 너무 행복했고 이후 명작동화의 초판본을 모으기 시작했다.

초판본을 수집하며 저자는 책을 수집하는 목적은 소장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 값비싼 초판본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책을 구입한다 등 세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화 초판본을 소재로 책 내용과 저자-삽화가를 둘러싼 이야기, 당시의 시대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종 신문 자료와 서적 등에서 수집한 풍성한 내용은 읽는 내내 즐거움을 준다. 특히 책에 언급된 동화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1868년 처음 발간된 '작은아씨들'은 작자 루이자 메이 울컷 자신의 네 자매가 주인공의 모티브가 됐고 둘째였던 작가는 '조'를 본신으로 생각했다. 책은 온 집안의 '노새처럼' 부러지면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놓지 않았던 젊은 시절, '작은아씨들'의 폭발적인 판매 후 그녀가 벌어들이는 돈에만 관심을 갖는 가족들, 초판본의 허접한 삽화에 얽힌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미 동화와 관련한 수많은 분석서들이 나와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얽힌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다.

옥스퍼드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수학과 교수인 루이스 캐럴이 학장의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갔다 그녀의 세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작품의 출발이었다는 사실, 그 중 둘째 딸 엘리스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잔뜩 넣어주세요'(with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1902년 판.

lots of nonsenses in it)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저자 만큼 유명한 삽화가 존 테니얼, 아동성애자의 의혹을 받았던 루이스 캐럴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그밖에 '톰 소여의 모험', '보물섬', '켄싱턴 공원의 피터팬', '빨간머리 앤', '하늘을 나는 교실', '안데르센 동화집', '곰돌이 푸 시리즈', '닐스의 모험' 등 모두 10권을 소개한다. <창비·1만6000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아홉 살 첫사랑=아홉 살이 된 하루와 카나가 새로운 감정을 배우면서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하루와 카나는 사쿠라다니 초등학교 2학년 2반으로 같은 반이다. 9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감과 다르게 새로운 감정에 당황하고 고민한다. 하루와 카나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렸다. <스콜라·9800원>

▲우주의 우체부는 너무 바빠! =우편배달부 보보는 매일 같은 장소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자못 편안하다고 느낀다. 어느 날, 우체국의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처음 보는 외계 행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게 된 보보. 쓰레기장에 넘어져 여기저기 멍이 들고,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사나운 개에게 빼앗기는데... 과연 보보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리움·1만1000원>



▲공룡이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주인공인 어린 소녀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도 키우지만 아주 크고 힘센 동물과 살고 싶어한다. 단단하고 우렁찬 몸집에, 기다란 꼬리가 달린 동물, 바로 공룡이다. 공룡과의 일상을 상상하던 아이는 조그만 공룡 장난감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아이가 잠이 들자, 낮 동안 아이가 상상했던 공룡이 뜰에서 서서 창문 안으로 머리를 쏙 들어민다. 꿈이 이루어진 걸까? <상상스쿨·1만2000원>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본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깨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p> <p>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③ 프리특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	--	---	---